



# 단합기반의 수익성 있는 투명조합 만들 터

## 조합원 권익보호 · 수익사업 앞장

신진문 /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 국프라스틱협동조합은 지난 2월 20일 서울 소피텔엠버서더 호텔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국노 이사장이 임기 만료됨에 따라 제14대 신임이사장으로 태광뉴텍 신진문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신진문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또한 “플라스틱 업계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과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산업이 발전하는데 저를 비롯해 프라스틱조합이 일조 한다는 것만으로도 설레임과 열성을 다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라고 덧붙였다.

신진문 이사장은 성균관 법대출신으로 1976년 태광뉴텍을 설립하면서 플라스틱 분야에 첫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 당시 플라스틱 분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황무지와 같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원자재를 공급받기 어려웠으며 독점 체제로 수요와 생산능력이 있으면서도 제품을 생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는 신진문 이사장은 “그러나 지금은 플라스틱이 일반 생활용품에서부터 첨단 자동화 제

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원수가 5백개에 이르는 프라스틱공업조합의 역할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신진문 이사장은 현재 지난 상황을 철저히 검토해 파악한 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긴밀히 쓰이고 있는 일회용품은 그 사용량을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사용을 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재질·재료나 그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쓰여져야

## 합성수지 ·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건설 지원 앞장

할 곳에는 그 특성에 맞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환경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같은 신소재 개발과 재활용량을 늘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플라스틱재활용협회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와 함께 한국프라스틱공업조합은 지난 3월 4일 합성수지 · 플라스틱 업계를 대표해 재활용공장건설에 120억원을 지원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로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맞춰 플라스틱의 재활용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사회적인 책임 분담, 플라스틱의 환경친화성을 높이며 나아가 관련 업계가 재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에 자발적으로 지원코자 한 것이다.

한국프라스틱공업조합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적인 활동을 위해 철저한 시장정보 분석을 통해 해외시장 확대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조합은 일본, 대만 플라스틱 조합과 연맹을 맺고 있어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중국시장 개척에 힘을 계획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플라스틱 분야의 분산된 조합을 하나로 뭉치고, 플라스틱 산업의 품목별 세분화된 마케팅 정보를 위해 조합은 품목별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것

입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신진문 이사장은 단체수의계약이 축소된데 대해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농업용 PE필름을 프라스틱조합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이를 다시 합류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신진문 이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면 각 분야별 관련 단체가 필요이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뿐이 아니라 회원사나 조합원사에게 꼭 필요한 단체가 되어야 하며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한국프라스틱공업조합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또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것이며 수익을 내는 단합조합, 투명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피력했다.

신진문 이사장은 여느 비상근 단체장이나 조합장과는 달리 늦은 시간이라도 매일 조합에 들러 업무에 대한 결제를 받는다고 한다. 이것은 그만큼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앞으로 신진문 이사장의 임기 동안 한국프라스틱공업조합이 플라스틱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다해낼 것을 기대하며 그의 활약에 주목해 본다. [ko]

권해진 기자